

3·1 정신 기리며 ‘남도의 봄’을 달려 봄



호남 마라톤 시즌을 여는 제5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3월 5일 화순 이양면 K water서 열린다. 올해 대회는 마라토너들이 질주에 전념하도록 도로에서 벗어나 코스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제5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 3월 5일 오전 7시 화순 K water서 출발

생동하는 봄 기운을 호흡하고 전국에서 모인 건 각들과 기량을 겨루는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호남 마라톤 역사를 대표하는 제5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오는 3월 5일 오전 7시 화순 이양면 K water 화순 흥수조절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방역지침 완화와 맞물려 열리기 때문에 마라토너들이 모처럼 대회를 만끽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코스도 도심에서 벗어나 마라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특별한 추억과 감흥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달리는 코스와 달리 화순 흥수 조절지 일원에서 레이스가 펼쳐져 차량 통행 등에 방해받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3·1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세삼창 등을 하며 항일 독립운동 선열을 기린다.

대회 코스는 흥수 조절지 코스를 순회하는 방식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첫 마라톤 개인·단체 2개 부문 나눠 치러 대회 참가 접수 20일까지 진행

으로 설계됐다. 완만한 평지에서 달리기 때문에 몸에 무리 없이 적절한 페이스 조절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

마라톤 마니아들의 새 시즌을 알리는 이번 대회는 개인·단체 2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대회를 치른다.

개인 부문 40km(8회전), 20km(4회전), 단체 20km(4회전), 10km(2회전)에서 레이스가 진행된다. 20km 단체전은 3명(남 2명, 여 1명)을 한팀으로 하되, 10개팀 이상 참가할 경우 레이스가 진행된다. 각 부문 1위부터 3위까지는 상금과 상장이 지급된다.

안전한 질주를 위해 행사장에 구급차가 배치되고

생수와 스포츠 음료 및 간식 등이 제공된다.

참가자 완주제한 시간은 40km(5시간 이내), 20km(3시간 이내), 10km(2시간 이내)이다. 대회 공식 기록은 기록점으로 측정하며 시상 기록은 건타임을 적용한다. 참가자들은 기록 측정을 위해 배부 받은 배너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배너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발, 골인 지점에 설치된 센서 매트를 밟지 않은 경우 기록이 측정되지 않아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마라톤 대회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참가비는 1인 3만원으로 대회 홈페이지(mara.kjmedia.co.kr), 팩스(061-371-1201)나 이메일(ds4bjt@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는 광주일보와 전남문화, 아시아문화가 주최하며 마라톤세상이 주관한다.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이 대회를 후원한다. 문의는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8-0541), 마라톤세상(061-375-1201.1288).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1 독립운동 정신 계승 ... 1954년 첫 레이스 국가대표 김재룡·문흥주 등 걸출한 스타 배출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올해로 58회째를 맞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는 호남 마라톤 역사를 대표하는 행사다.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마라톤 저변 확대를 위해 창설한 대회는 1954년 3월 7일 광주~화순간 왕복 32km 구간에서 첫 레이스를 시작했다. 올해 창사 71주년을 맞는 광주일보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표적인 전국 행사다. 60년대 군정 집권기 6년간 대회가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 해마다 면면히 맥을 이어오면서 숭한 건국을 배려했다.

심상욱·임화동·오세대·김해룡·이상훈·문흥주·육철수·김재룡 등이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배출한 스타다. 이상훈은 60년대, 문흥



문흥주씨

주는 70년대 한국마라톤 기록보유자로 명성을 떨쳤고 문흥주, 육철수는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김재룡은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황영조, 이봉주 등과 함께 한국 마라톤 전성기를 이끈 주역이다.

70년대 11회 대회부터는 구간을 광송(光松)간으로 바꾸고 거리도 10km로 단축하면서 초·중등부를 신설, 중·장거리 육상꿈나무 발굴의 산파역을 충실히 해냈다. 2005년 40회 대회를 맞아 풀코스를 신설하고 대회 명칭을 '3·1절 기념 광일단축마라톤대회'에서 '3·1절 전국마라톤대회'로 변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필드에 복귀 타이거 "목표는 우승"

PGA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 ... "다리에 점점 힘 붙어"

7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 복귀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우승을 목표로 뒤통수라고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을 이틀 앞둔 15일(한국시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우즈는 "대회에 나선 이상 목표는 우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 나온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늑이 잔뜩 슬었지만 늑을 벗겨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1년 교통사고 이후 치료와 재활 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즈는 작년 7월 디오피 이후 한 번도 PGA투어 대회를 포함한 정규 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이틀짜리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와 함께 나왔지만, 카트를 타고

경기했고 "다리에 힘이 충분히 붙지 않아서 4라운드를 내내 걸어다니는 게 아직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견장에 들어서면서도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인 그는 "작년보다 다리가 나아졌다. 하루하루가 힘겹긴 하지만, 점점 힘이 붙고 나아진다. 지난 몇 달 동안 훨씬 좋아졌다"고 몸 상태를 설명했다.

예초 4월 마스터스를 복귀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던 우즈는 자신이 호스트라서 이 대회를 복귀 무대로 삼은 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더는 우승 경쟁을 할 수 없는 때가 조만간 오겠지만 대회에 나와서는 흥분대사 역할이나 하는 건 아직 때가 이르다"라는 우즈는 "내 DNA에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우승하려고 대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침묵 토트넘, 챔스 16강전 AC밀란에 0-1 패배

손흥민(31)이 침묵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홉스퍼가 AC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에서 패하면서 8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들은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에 최고 평점을 매겼다.

토트넘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시로에서 열린 AC밀란과의 2022-2023시즌 UCL 16강 1차전에서 전반 7분 만에 브라질 디아스에게 내준 선제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0-1로 졌다.

토트넘은 다음 달 9일 오전 5시 홈에서 치러지는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에 진출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

토트넘은 3년 만에 오른 UCL 무대에서 프랑크푸르트(독일), 스포르팅(포르투갈), 마르세유(프랑스)와 조별리그 D조에서 경쟁해 선두를 차지하며 16강에 올랐다.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1-4로 크게 진 토트넘은 공식전 2연패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원폭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6분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UCL에서 2골을 기록 중이다. EPL(4골 3도움)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2골)에서 올린 기록을 더하면 올시즌 공식전 기록은 8골 3도움이다.

다만, 손흥민은 빠른 몸놀림과 날카로운 킥을 선보이며 부진했던 전반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



"메시 살라"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15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2022-2023시즌 UCL 16강 1차전에서 수비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뮌헨이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습을 보여준 게 위안거리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최근 4경기 1승 3패를 기록하며 4위권 밖(5위)으로 밀린 AC밀란은 이날 승리로 UCL 8강행 가능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정규리그에서 분위기 반전의 기틀까지 마련했다. AC밀란이 디아스의 문전 집중력을 앞세워 이른 시간 선제골을 뽑았고, 이것이 결승골이 됐다.

/연합뉴스